A picture containing drawing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  |
| --- |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7, 505호(안국동) T : 02) 3478-0529 F: 02) 3478-0527  변호사: 김세진, 정신영, 이일, 전수연 E-mail: info @apil.or.kr 홈페이지:www.apil.or.kr |
|  |

**[태평소금]**

2022년 8월 9일자 질의에 대해 2022년 8월 16일자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의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귀사가 답변을 하지 않은 기존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1. 장정배 일가는 언제부터 태평염전 염전 부지를 임차해 왔습니까? 귀사가 소유한 55개의 염전 중에 평균적으로 연간 어느 규모의 염전 부지를 장정배 일가에게 임차했습니까?
2. 최근 사건(장정배 일가의 염전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해 받은 행정처분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지원금 환수조치, 허가 취소, 영업정지명령)
3. 염생산계약서의 갱신 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염생산계약서 중 몇 %에 ‘인권 관련’ 조항이 추가가 되었습니까?
4. 귀사는 2022년 8월 16일자 답변서에서 소금생산위탁계약상 인력고용은 수탁자 고유의 권한이므로 귀사는 관리와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귀사는 염전 종사자를 임차인으로 착각해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합니다[[1]](#footnote-1). 귀사는 어떻게 해당 염전 종사자의 계좌번호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염전 종사자를 임차인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5. 귀사는 언론에 장정배의 범죄경력과 장애인 착취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2]](#footnote-2) 귀사는 2014년 이후 수탁인 중에서 장애인 착취로 인해 기소되었거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장정배 일가를 제외한 태평염전의 임차인 중 강제노동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되었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귀사에게 아래와 같이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1. 귀사가 소금생산위탁계약을 맺은 수탁자는 총 몇 명(혹은 몇 개 업체)입니까? 귀사는 소금생산위탁계약 외에 임대의 형식으로 염전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2.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염전 중 귀사 임직원이 직접 천일염을 생산하는 곳도 있습니까?
3. 소금생산위탁계약의 경우 소금 생산을 한 수탁자에게 염 생산량의 %를 대가로 지불하십니까? 염전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염 생산량의 %를 차임으로 받습니까? 귀사의 2021년 및 2021년 소금생산위탁계약서 내지 염생산계약서를 제공해주시겠습니까?
4. 귀사로부터 가장 많은 양의 천일염을 납품 받는 회사 3곳은 어디입니까? CJ 제일제당은 귀사로부터 천일염을 납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사는 CJ 제일제당에 언제까지 천일염을 납품을 하였습니까?
5. 귀사는 2015년 이래 수탁자들에게 표준 근로 계약 양식을 제공하고, 공정거래확인서에 명시된 염전 종사자 인권 보호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을 안내 해왔고, 염전 종사자의 숙소 생활 환경 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귀사가 제공한 표준 근로 계약 양식을 제공해주시겠습니까? 귀사가 안내한 공정거래확인서에 명시된 염전 종사자 인권 보호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귀사는 염전 종사자의 숙소 생활 환경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겠습니까?

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18098 [↑](#footnote-ref-1)
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45934&plink=ORI&cooper=NAVER> [↑](#footnote-ref-2)